

[로스쿨 소식]

##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시나브 law’,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우승’

성균관대 로스쿨 ‘시나브law’팀(팀장 오일환)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7월 20일 세종시 청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열고 ‘시나브law’팀을 우승팀으로 선정했다.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13개 로스쿨에서 16개팀, 112명이 참가했다. 예선심사 결과 2개팀이 본선에 오른 한국외대를 비롯해 고려대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영남대, 전북대 등 7개 로스쿨 8개팀(68명)이 본선에 진출해 이날 열띤 경연을 펼쳤다.

‘시나브law’팀은 대상인 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권익위 법률사무 연수 기회도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대한변협 협회장상은 영남대 로스쿨 ‘원용무애(팀장 강창오)’팀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상은 한국외대 로스쿨 ‘행심구명(팀장 배도은)’팀이,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상은 같은 학교 ‘프law포즈’팀(팀장 김동욱)이, 법률신문사 사장상은 서울대 로스쿨 ‘幸審(행심)’팀(팀장 박상록)이 각각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원씩이 지급됐다.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MVP상은 '원용무애'팀의 강창오(42·1학년·남)씨에게 돌아갔다. '행정심판으로 사람의 운명을 구하는(求命) 동시에 진리를 구명(究明)한다'는 뜻을 담은 이름의 '행심구명'팀은 '좋은 이름상'도 함께 받았다.

이와 함께 본선에 진출한 8개팀 전원에게는 법률신문사가 발간하는 법전과 1년치 신문 구독권이 부상으로 지급됐다.

이번 대회 본선에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 취소청구' 사건이 과제로 주어졌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약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을 내린 뒤 해당 의사의 처분 연기 요청에 따라 2차례 연기 처분을 한 경우 △일자만 변경한 처분이 독립된 처분인지 여부와 △2차 연기 처분의 의료법 부칙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이었다. 참가자들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쟁을 펼쳤다.

본선 심사위원장인 김대희 중앙행심위 상임위원은 "본선에 진출한 팀들의 실력이 모두 뛰어나 우열을 가리기 너무 어려웠다"며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준 높은 토론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은 지금 당장 변호사로 투입해 행정심판 사건을 맡겨도 될 정도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다"고 치하했다.

이상민(52·사법연수원 18기)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참가자들에게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국민의 권익이 무엇인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고민과 토론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법조인이 되기 위한 앞으로의 여정을 미리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격려했다.